

後進國의 所得分配問題에 대한 接近

朴 在 潤

<目 次>

- I. 後進國開發理論과 分配問題
- II. 分配理論의 展開
- III. 分配理論과 後進國의 分配構造

I. 後進國開發理論과 分配問題

1.

第2次世界大戰이후 開花하기 시작한 後進國開發理論에서는 실로 多様な 內容의 問題들이 논의되어 왔다. 비교적 初期에는 天然資源의 不足이 論議의 一角을 차지하기도 하였지만, 그후에는 資本의 戰略的 重要性이 크게 강조되었고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는 企業家能力이 중요시되기도 하였으며 人的 資源 및 技術의 經濟開發에 대한 貢獻도 강조되었었다. 그밖에 公共秩序, 法的 施行, 公共行政의 能率 등도 논의되는 것이 通例였고, 經濟史學者나 社會學者들은 信仰 態度 價值體系 輿論 등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고 成就意慾과 같은 心理的 要因을 강조하는 논의도 있었다.

後進國開發에 관련되는 많은 문제들을 둘러싸고 問題意識 理論의系統 接近方法 등을 달리는 여러 理論이 多様하게 전개되었고 그들의 主要關心對象이 되는 문제도 서로 달랐지만, 이들 諸論議에 있어서 가장 共通의인 中心課題가 되었던 것은 대체로 國際分業體制下에 있어서 後進國의 特化問題와 資本蓄積의 問題, 그리고 後進國의 社會關係 등 세가지였다고 볼 수 있다.⁽¹⁾

첫째의 國際分業體制下에서의 後進國의 特化問題는 後進國開發理論이 擡頭되기 시작한 初期段階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두가지 見解가 대립되고 있다. 比較生産費에 의한 特化의 주장과 工業化의 주장이 그것이다.

(1) 松井 清編, 『後進國開發理論의 研究』, 有斐閣, 1959, pp. 193-207.

前者는 比較生産費說에 기초를 둔 古典學派의 國際分業論을 계승한 주장으로서, J. Viner가 그 대표적 主唱者이었다. 그는 農業과 貧困을 同一視하고 工業化를 經濟開發의 目的으로 설정하는 開發理論을 비판하고, 「貧困의 主된 問題는 農業 그 自體도 아니고 工業 그 自體도 아니며 貧困한 農業 또는 貧困한 農業과 工業이다. 따라서 問題의 解決은 貧困과 後進性의 基本적 原因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국가에 있어서 급속한 經濟發展이 가장 尤當한 분야는 農業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經濟發展의 障礙要因은 低位의 生産性, 資本의 過少, 交易條件의 惡化, 急速한 人口增加率 등이며 이러한 諸障礙를 除去하기 위해 先進國은 貿易障壁의 全般的 除去, 適切한 조건에 의한 자유로운 國際資本移動, 技術知識의 一般의 普及에 노력하고 後進國 自體로서는 健康, 一般教育, 技術訓練의 向上, 보다 편리한 交通機關 및 生産的 目的을 위한 低利의 農業信用機關設置 등에 注力할 것을 제안하였다.⁽²⁾

한편 後進國開發을 위하여는 工業化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하는 주장은 H.W. Singer, Ragnar Nurkse, Albert O. Hirschman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後進國開發論者들의 주장이었으며 後進國開發問題에 관한 U.N.의 諸報告書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Nurkse는 需要가 非彈力的이며 靜態的인 第1次商品에 特化하고 그 輸出에 의존하는 것은 長期的 發展에 있어서 유리한 방향이 아님을 지적하고 『低開發國의 經濟成長은 대부분 國內市場에 대한 生産增加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工業化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投資誘因이 市場의 크기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을 강조하여, 後進國에 있어서는 이 市場이 狹少하므로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廣範圍한 異種產業이 동시에 開發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人口過剩國에서는 勞動集約的인 工業에, 그리고 人口過少國에서는 農業生産力의 向上에 우선 着手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

이와같이 農業이나 工業이나의 選擇問題는 後進國開發理論이 開花되면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이지만, 그뒤의 理論展開는 대부분 工業化를 後進國開發의 代表的 手段으로 전제하고 이에 관련되는 諸般隘路를 糾明하고 그 打開策을 論究하는 방향으로 흘렀으며, 실제로 많은 後進國들은 工業化를 經濟發展의 基本수단으로 삼고 그들의 開發政策을 具現해 온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後進諸國이 工業化를 推進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逢着한 가장 基本적인 隘路는

(2) Jacob Viner,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Lectures delivered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Brazil, Oxford at the Calendon Press, 1953.

(3) Ragnar Nurkse, *The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Oxford, 1953.

資本不足의 문제로서 그것은 後進國開發理論에 있어서 또하나의 中心課題가 되었다. 이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는 國際資本移動에 커다란 중요성을 附與하는 견해와 國內資本形成에 第一義的인 의미를 附與하는 見解가 對立되어 왔다.

前者的 見解는 後進國開發에 관한 UN의 調査報告書⁽⁴⁾에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後進諸國에 있어서 1人當 國民所得을 年 2% 增加시키는 데 필요한 資本金額을 계산하고 國內財蓄額과 비교하여 外資導入의 必要額을 明示하고 있으며, Buchanan과 Ellis도 그들의 著書⁽⁵⁾에서 後進國開發에 대한 外國資本의 作用에 상당한 力點을 두고 있다.

그러나 Viner에 의하여 대표되는 古典學派後進國開發理論은 國際資本移動에 관하여 悲觀的인 견해를 가지고 國內에 있어서의 資本蓄積, 그것도 民間의 自發的인 貯蓄에 기대하고 있으며, Singer, Nurkse 등 近代經濟理論에 立脚한 後進國開發論者들도 國內資本形成에 重點을 두고 있다. Nurkse에 의하면, 人口過剩인 後進國에 있어서는 潛在的 失業이 농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潛在的 失業者는 生産的 勞動者에 의하여 扶養됨으로써 生産的 勞動者의 貯蓄을 잠식하고 있으므로 이 潛在的 失業을 농촌으로부터 吸收하여 工業化를 위한 勞動力으로 이용하는 것에 의하여 資本形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資本不足의 문제를 國際資本移動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하든 또는 國內資本形成에 기대하든 간에 이들 後進國開發理論은 資本不足을 經濟開發의 가장 기본적인 隘路로 인식하고 資本蓄積을 開發理論의 中心課題로 삼고 있는 점은 대체로 공통되고 있다.

이상의 分業問題와 資本蓄積問題는 古典學派理論나 近代經濟理論에 立脚한 後進國開發理論의 中心課題이지만 이러한 正統派經濟學의 觀點과는 달리 後進國開發問題에 관하여 社會學的 接近方法을 취하는 J.H.Boeke, J.S.Furnivall, S.H.Frankel 등은 社會關係를 논의의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들은 각각 後進國의 社會關係를 二重社會, 複合社會 또는 多人種社會라고 규정하고, 後進社會의 經濟發展은 資本主義的 工業化에 의하여 달성될 수 없으며 前資本主義的 傳統에 대한 鬭爭과 前資本主義社會의 近代化에 착수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⁶⁾ 이들 社會經濟學派의 見解의 妥當性은 고사하더라도 이들에 의하여 後進國의 社會關係가 開發理論의 中心課題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이상에서 概觀한 後進國開發理論의 기본적 문제들은 古典學派經濟理論 近代經濟理論 社會學的 接近方法 등에 입각한 後進國開發理論들의 中心課題이었지만, 맑스主義的 後進國

(4) United Nations, *Processes and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1955.

(5) Buchanan and Ellis, *Approaches to Economic Development*, 1955.

(6) 松井 編清, 『前掲書』, pp. 129-165.

開發理論을 代表하는 M. Dobb⁽⁷⁾에 있어서도 開發理論의 中心課題는 마찬가지로이다. 그에 의하면 農業生産에 있어서 機械技術의 適用이 工業에 있어서보다 制約된 결과 農業國의 勞動生産性은 일반적으로 工業國에 뒤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農業國의 發展方向은 勞動生産性を 높이고 生活水準을 上昇시키는 工業化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그는 工業化過程의 困難이 從來의 見解처럼 投資에 이용될 貯蓄基金의 貧困(또는 貯蓄을 動員하는 制度의 缺如)에 있는 것은 아니며 後進國工業化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農業國이 現在 가지고 있는 潜在力을 적절히 이용하는 社會經濟的 組織의 問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第2次世界大戰 이후 百花난만하게 전개되어온 後進國開發理論의 脈絡을 論者들의 理論的 派流에 쫓아 一瞥하였다. 國際分業體制에 있어서 後進國特化의 方向을 古典的인 開發理論에서처럼 比較生産費說의 敎示에서 구하고 資本蓄積을 民間의 自發的 貯蓄에 기대하든, 혹은 近代經濟理論에 立脚하여 後進國開發의 基本方向을 工業化로 설정하고 資本不足의 解決을 國際資本移動에 기대하든, 혹은 國內資本形成에 기대하든, 그리고 社會學的 接近方法을 援用하여 後進社會의 後進性에 理論의 초점을 맞추든, 혹은 Dobb에 있어서처럼 後進國開發問題의 本질을 經濟組織의 問題에서 구하든, 모든 後進國開發理論의 關心은 거의 絶對적으로 經濟活動의 生産側面에만 局限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後進國問題의 端初가 人間生活의 物質的 基礎의 缺如 내지 不足에 있느니만큼 開發理論의 초점이 生産側面에 맞추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經濟開發의 究極的인 意義가 缺如 내지 不足되고 있는 人間生活의 物質的 基礎를 確保하는 그 自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人間生活을 自然的 및 社會的 諸制約으로부터 解放시키고 人間內在의 理想을 實現케 하는 것이 經濟開發을 追求하는 究極的 目的이라면, 우리는 後進國開發理論이 經濟活動의 分配側面을 論外로 하고 生産側面에만 그 論議를 局限시키고도 後進國問題에 대한 만족스러운 解答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後進國開發理論은 後進國의 物質的 進歩에만 그 관심을 기울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物質的 進歩가 그대로 人間의 理想을 實現할 수 있는 物質的 基礎가 된다는가, 또는 人間의 幸福增進에 寄與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J. Tinbergen이 適切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같이, 「첫째로 우리는 不遠聞 더 많이 消費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버릇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消費 그 자체보다는 消費의

(7) Maurice Dobb, *Some Aspects of Economic Development, Three Lectures*, 1951.

增加가 될 것이며, 둘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比較가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셋째로 눈에 익은 製品以外에 새로운 製品이 생기면 그것도 갖고 싶어서 그것이 곧 入手되지 않으면 以前과 同一한 消費水準을 갖고 있어도 不幸하게 생각되는 것이다.」⁽⁸⁾

物質的 進歩의 다른 한편에 造成되는 위와같은 厚生減少의인 作用外에도, 우리는 後進國經濟開發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所得分配의 不平等이 經濟開發 그 자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沮止的 作用을 가지는 사실을 看過할 수 없다. J. K. Galbraith 教授의 指摘을 빌린다면, 「우리가 많은 國家의 巨大한 조직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관찰한다면, 우리는 곧 社會秩序의 缺如, 즉 富와 政治權力이 少數人의 壟斷에 그치고 따라서 國民大衆은 進歩의 諸誘因으로부터 排除되고 있는 社會組織을 발견하게 된다. 만약 二毛作의 收穫이 不可避하게 地主의 手中으로 들어가버린다면 아무리 위대한 營農改革專門家라 할지라도 二毛作의 有益性을 농민들에게 納得시킬 수 없을 것이다. 최선의 農業投資方式이나 최고의 農地擴張技術이라도 그 利得이 耕作者에게 歸屬된다는 것을 耕作者가 數年來의 經驗에 의하여 認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가질 수 없게 된다.…… 經濟開發이 國民大衆의 參與에 의존하려면 普遍的인 報償의 體制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國民大衆의 활발한 參與가 없다면 效果的인 進歩는 있을 수 없으며 사람은 아무도 他人의 致富를 위하여 그의 최선의 노력을 傾注하려는 性向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⁹⁾

뿐만 아니라 所得分配의 不平等은 私的投資家의 生産的 投資를 뒷받침할 國內市場의 규모를 縮小한다. 賃料所得 利子所得 商業所得을 所得發生의 支配的인 源泉으로 하는 高所得層에 있어서는 奢侈的 支出과 投機나 退藏 등이 高所得의 支配的인 處分形態로 되고 있고 大多數國民大衆의 低所得은 生産的投資를 위한 國內市場을 形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後進國의 일반적 현상이다.

이러한 分配構造上的 沮害的 作用에도 불구하고 所得分配問題에 대한 理論的 및 政策的 關心이 소홀했던 것은 무엇때문인가? 물론 經濟開發의 端初的인 問題는 生産側面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開發理論의 가장 중심적인 課題로 된 것은 당연한 歸結이지만, 그러나 開發理論에서 分配問題가 거의 論外로 되다시피 된 이유는 무엇인가?

後進國의 分配問題에 관한 理論的 無關心과 관련하여 우리는 後進國開發의 문제가 提起된 歷史的 背景을 잠시 검토하여볼 필요가 있다. 第2次大戰後 後進國開發의 문제는 開發되어야 할 後進國에 있어서보다 이미 開發된 先進國에서 먼저 提起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8) Jan Tinbergen, *Lessons from the Past*, 1963, p.24.

(9) J.K. Galbraith, *Economic Development in Perspective*, 1962, p. 18 & 23.

만 하다. 先進國에서 後進國開發理論이 提起된 歷史的 背景은 다음과 같이 지적된다.⁽¹⁰⁾

① 第2次大戰後 많은 資本主義國家들이 換管理方式을 취하게 됨으로써 通貨의 自由交換이 沮害되고 따라서 資本輸入國으로부터 資本輸出國에의 利潤 利子 元金 등의 支拂에 不安이 생기게 되자 이것은 民間資本의 國際的 移動을 어렵게 하였고, 따라서 先進國이 後進國에 資本을 輸出하여 後進國의 市場을 開發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기 때문에 先進國은 後進國內부에 있어서 資本의 形成과 市場開發을 考慮하게 되었다.

② 先進國에 있어서 工業의 中心이 消費財工業으로부터 生産財工業으로 移行한 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는 後進國의 工業化(消費財工業을 中心으로 하는)가 先進國의 利益에 反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先進國의 生産財工業의 市場을 擴大하는 것이므로 第2次大戰後 後進國에서 民族獨立運動이 격화됨에 따라 先進國은 自國의 利益을 沮害하지 않는 形態로 後進國의 民族資本形成을 促進하게 되었다.

③ 獨占資本主義諸國에 있어서 經濟의 軍事化는 軍需品의 市場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後進國의 開發에 의해 그 國民所得을 上昇시키고 擔稅能力을 提高함으로써 先進國의 軍需品에 대한 購買力을 增大시키고자 하였다.

위와같은 歷史的 背景에 의하여 先進國에서 出發된 後進國開發理論의 모든 關心이 後進國의 生産側面 즉 絶對的인 所得水準의 上昇에만 쏠리게 된 것은 오히려 當然한 歸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그들은 後進諸國의 經濟開發에 있어서 絶對的인 生産水準의 上昇이 所得分配의 平等化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後進國의 全體的인 社會的 厚生을 增大시켜야 한다는 문제에는 關心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第2次大戰後 제기된 後進國開發理論의 主要한 潮流를 一瞥함으로써 그들 理論의 관심이 後進國의 生産側面에만 局限되어 있음을 보았고 後進國問題에 있어서 결코 度外視될 수 없는 分配側面에 대한 考慮가 既往의 後進國開發理論에서 論外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II에서는 既存의 分配理論을 古典學派, 新古典學派, 케인즈學派, 社會經濟的 接近으로 區分하여 그 理論的 特徵과 接近方法을 涉獵하고, III에서는 이러한 既存의 分配理論이 오늘날 後進國의 分配構造를 說明하는 데 有用한가를 검토함으로써 後進國의 分配問題에 대한 새로운 接近의 필요성을 提示하고자 한다.

II. 分配理論의 展開

分配問題는 經濟學의 基本的인 問題의 하나로서 經濟學의 歷史 以來 많은 學者들에 의

(10) 松井 清編, 『前掲書』, p. 1.

하여 各樣各色的 論議가 展開되어 왔다. 古學學派는 所得을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各各의 性質을 糾明하고자 하였으며 社會主義者들은 高所得層과 低所得層간의 鬭爭을 강조하였고 新古典學派는 生産의 側面에서, 케인즈學派는 需要의 側面에서 各各 分配問題에 접근하였으며 所得集團의 社會的 特性과 特定한 行態를 강조하는 一群의 論者도 있다. 여기서 이들 分配問題에 관한 諸理論을 古典學派, 新古典學派, 케인즈學派, 그리고 社會學的 接近등의 體系로 나누어 各各의 理論的 特徵과 接近方法 등을 概觀하기로 한다.

1

古典學派의 分配理論은 D. Ricardo 에 의하여 대표된다. 古典學派經濟學者들은 일반적으로 經濟成長 내지 資本蓄積의 諸原因과 諸結果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諸結果중에서 리카도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資本의 蓄積이 所得의 階級的 分配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이에 관하여 리카도는 「土地의 生産物——즉 勞動과 機械과 資本의 結合投下에 의하여 地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社會의 세 階級간에 나누어진다. 土地의 所有者, 耕作에 필요한 財의 蓄積 즉 資本의 所有者 및 勤勞에 의하여 土地를 耕作하는 勞動者가 즉 그들이다.……이 分配를 左右하는 法則을 決定하는 것, 이것이 經濟學의 主要問題이다」⁽¹¹⁾라고 叙述하고 있다.

리카도의 理論은 다음에 列舉하는 다섯 개의 기본적인 前提條件에 입각하고 있다. ①土地의 量은 一定하나 資本과 勞動의 量은 變化한다. ② 生産函數는 所與이고 資本과 勞動의 結合比率는 一定하다. ③ 土地에 관한 收穫遞減의 法則이 作用한다. ④ 賃金率은 관습적으로 決定되는 一定의 값을 가진다. ⑤ 말더스流의 人口法則이 작용한다. 리카도는 이러한 前提下에 일종의 巨視的 分配理論을 展開하였던 것이다.

먼저 Ricardo 에 의하면 地代는 「土地生産物중 土壤에 固有한 不滅의 힘의 使用에 대하여 地主에게 支拂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附加的 勞動量의 投下에 대하여 收穫은 比例以下로 작게 된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이다. 즉 地代는 所與의 土地에 대한 資本과 勞動의 投下가 行해됨에 따라 그것에 收穫遞減의 法則이 作用한다고 하는 사실에 基因한다는 것이다.

賃金에 관하여 Ricardo 는 勞動의 市場價格과 自然價格을 區別하고 있다. 自然價格이란 『勞動者가 衣食하고 穿한 그 種族을 增減하지 않고 永續시키는데 平均的으로 必要한 價格』⁽¹²⁾이고, Ricardo 에 의하면 賃金은 長期的으로는 生存水準으로서의 自然價格에 落着하

(11) D. Ricardo,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London J.M.Dent & Ltd., 1957, p. 1.

(12) *Ibid.*, p. 52.

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自然價格은 반드시 一定의 水準에 固定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대체로 國民의 習性風習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同一한 國家에 있어서도 時代를 달리함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國家가 다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실제로 勞動에 支拂되는 價格으로서의 市場價格은 勞動市場에 있어서의 需給關係에 의하여 決定된다. 勞動에 대한 需要는 資本의 蓄積에 의존하고 그 供給은 人口의 增加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人口增加는 말더스의 人口法則에도 의존하고 그 自體가 賃金の 函數라고 보고 있다. 만약 資本의 蓄積率이 人口의 增加率을 上廻하게 되면 勞動의 市場價格은 自然價格 以上으로 騰貴하고 그에 의하여 賃금이 生存水準以上으로 上昇하면 말더스의 人口法則에 의하여 人口가 增大하고 賃금은 生産水準에까지 下落한다는 것이다.

리카도·모델에서는 利潤은 剩餘라고 보고 있다. 換言하면 그것은 總收入으로부터 地代와 賃金を 支拂한 후에 資本家の 手中에 남는 것이다. 즉 地主 및 勞動者에의 支拂을 濟한 後의 土地生産物의 나머지는 필연적으로 農業者에 歸屬되는 資本의 利潤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Ricardo에 의하면, 「農業者 및 製造業者가 利潤없이 生活할 수 없는 것은 勞動者가 賃金없이 生活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들의 축적에 대한 動機는 利潤의 減少와 함께 감소하고 資本을 生産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遭遇하지 않으면 안되는 煩勞와 위험을 충분히 보상하기에 足하지 않은 수준에까지 利潤이 下落하면 그 동기는 進적으로 消滅한다」⁽¹³⁾고 보기 때문에 資本의 蓄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어떤 最低限 主要誘因을 保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Ricardo는 利潤動機가 蓄積에의 度의 利潤이 이룬다고 보고 있다.

經濟成長의 過程에 있어서 賃金·利潤·地代の 動向에 관하여는 어떻게 보았는가? 리카도에 의하면 人口의 增加는 穀物에 대한 需要를 增加시키고 다시 이 需要增加는 土地收穫遞減을 일으켜 穀物의 價格, 나아가서는 勞動의 自然價格을 騰貴시키며 그 결과 利潤을 低落시킨다. 다른 한편 收穫遞減法則下에서의 農耕의 擴大는 이른바 「限界範圍內」(intra-marginal)의 土地에 대한 地代를 騰貴시키기 때문에 이 土地를 사용하고 있는 農業者가 地代를 支拂한 후에 남는 投入(勞動 및 資本의 結合) 1單位當의 生産物의 量은 그만큼 적게 된다. 따라서 만약 穀物로써 測定한 賃금이 一定하다고 한다면 勞動者는 地代支拂後의 보다 작은 剩餘중에서 보다 큰 比率를 受取하는 것으로 된다. 이와같이 하여 資本의 蓄積에 比例하여 人口가 增加하면 「보다 큰 價値가 생산되더라도 그중 地代를 支拂한 뒤에 남

(13) *Ibid.* p. 65.

는 것의 보다 큰 比率이 生産者(노동자)에 의하여 소비된다. 따라서 利潤을 左右하는 것은 이것이고 또한 이것만이다」⁽¹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와같이 資本의 蓄積이 進行되면 利潤에 대한 賃金の 比率이 증대한다고 보지만, 그것은 반드시 總生産物에 대한 賃金の 相對的 分配分의 增大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蓄積過程에 있어서 賃金·地代·利潤의 相對的 分配分의 動向에 관하여 Ricardo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즉 「勞動者取得分의 價値는 食物의 高價値때문에 增加한다고 하더라도 그 實質的 分配分은 減少하는 한편 地主의 그것은 다만 價値뿐만 아니라 量의 面에 있어서도 增加한다.…… 地主 및 勞動者에의 支拂을 差減한 뒤의 土地生産物의 殘餘는 반드시 農業者에게 歸屬하고 그들의 資本에 대한 利潤을 구성하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社會의 進歩에 따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全生産物의 比率은 減少한다고 하더라도 그 價値는 騰貴하기 때문에 그들도 地主 및 勞動者와 함께 보다 큰 價値를 받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¹⁵⁾ Ricardo의 見解에 의하면 資本의 蓄積에 比例하여 人口가 增加하고 그와함께 食物獲得의 곤란이 증대할 때, 總生産物에 대한 地代의 相對的 分配分은 增大하고 賃金 및 利潤의 相對的 分配分은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이다.

결국 Ricardo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세가지 分配形態의 變動關係에 있어서 土地 對 資本의 對立이었다. 이 兩者의 中間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勞動者로서, 그들의 實質賃金에는 변화가 없으나 賃金과 利潤의 相反關係에 의하여 利潤低落의 직접적 원인은 賃金上昇에 있으므로 總體的 生産物의 分配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資本家와 勞動者라는 것이다. Ricardo에 의하면 결국 地代騰貴——實質賃金不變——利潤下落의 관계를 통하여 地主 勞動者 資本家간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으로 된다.

Ricardo에 의하여 대표되는 古典學派 分配理論의 接近方法은 所得을 地代 賃金 利潤의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資本蓄積過程에서 일어나는 三者의 分配關係의 變化를 考察한 것이다.

2.

이상에서 概觀한 바와 같이 Ricardo에 의하여 대표되는 古典學派體系에 있어서는 土地

(14) *Ibid.*, pp. 67-68.

(15) *Ibid.*, p. 76.

勞動 資本 등 諸生産要素의 價格, 즉 地代 賃金 利子 등의 결정을 각각 別個의 原理에 의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新古典學派에 이르러서는 限界生産力說이 分理理論의 基本적 설명 원리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는 Ricardo가 地代의 설명에 이용한 限界原理의 適用範圍를 土地이외의 生産要素에 까지 일반화하여 확대한 것이다.

1870年代에 이르러 理論經濟學은 Stanly Jevons, Carl Menger, Léon Walras 등에 의한 이른바 限界革命을 契機로 새로운 展開를 보게 되었다. 즉 그들은 消費財價格을 설명하기 위한 원리로서 當時까지의 勞動價値說에 대신하여 限界效用原理를 도입하여 경제학의 새로운 理論體系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限界效用原理는 消費財價格의 決定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Jevons 나 Menger는 限界原理를 生産用役價格의 분석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귀중한 示唆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그들의 分配理論은 기본적으로 古典學派的이었고 그로부터 충분히 脫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890年代에 이르러서는 Léon Walras, P. H. Wicksteed, A. Marshall, Wicksel, Clark, Baronet 등에 의하여 각각 獨立的으로, 그리고 同時에 확실한 형태로서의 限界生産力說이 나타났다.

限界生産力說은 일반적으로 個別企業의 입장에 있어서 生産編成의 選擇의 이름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限界生産力說의 諸定理은 어떤 一定의 產出量에 관하여 그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한 조건, 다시 말하면 企業이 利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채택되는 것이다. 利潤의 극대화에 관하여는, 生産要素의 가격은 그 限界生産物의 價値와 같다는 명제가 있고, 費用의 극소화에 관하여는, 각각의 生産要素의 限界生産物이 그 가격에 비례하도록 諸要素의 結合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定立되고 있다. 이와같이 限界生産力說은 第一義的으로는 個別企業의 입장에 있어서 生産編成의 選擇의 이론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經濟全體의 生産物의 分配關係를 다루려고 하는 試圖로서도 중요한 점이 있다. J. B. Clark 나 Cobb-Douglas의 限界生産力分析이 그 대표적 이론이다.

이들 이론의 基本적인 思考는 다음과 같다. 1國의 生産要素를 勞動과 資本으로 大別하고 그 量은 미리 決定된다고 想定한다. 所與의 資本量에 대하여 結合된 勞動의 量을 漸次 증가시키면 收穫遞減의 法則에 의하여 勞動의 限界生産物은 漸次 감소하지만 勞動의 完全 雇傭을 假定하면 勞動의 最終單位의 限界生産物의 크기가 確定되고 이것이 賃金水準을 결정한다. 資本의 價格으로서의 利子率의 결정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基本적 思考에 立脚하고 있는 限界生産力說의 所得分配에 관한 一般의 歸結은, J. R. Hicks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基本적인 命題로 요약된다.⁽¹⁶⁾

① 任意的 生産要素의 供給增加는 만약 그 要素에 대한 需要의 彈力性이 보다 크다면 그 要素에 歸屬되는 絶對的 分配를 增加시킨다.

② 任意的 要素의 供給增加는 一括된 모든 다른 要素의 絶對的 分配分을 모두 增加시킨다.

③ 任意的 要素의 供給增加는 만약 그 要素의 代替強力性이 1보다 크게되면 그 相對的 分配分을 增加시킨다.

요컨대 限界生産力說에 의하면 任意的 生産要素의 分配率은 그 平均生産力에 대한 限界生産力의 比率로써 결정된다. 그런데 限界生産力說은 完全競爭市場을 前提로 하고 있지만 현실의 經濟가 이러한 前提條件으로부터 乖離하고 있는 점에 着眼하여 競爭의 不完全性 내지 獨占이라는 要因을 所得分配의 주된 規定因으로 설명하는 獨占度理論이 등장하였다.

競爭의 不完全性 내지 獨占의 要因은 최초로는 限界生産力說의 修正이라는 形態로서 微視的인 價格分析의 領域에 등장하였다. 즉 完全競爭의 假定下에서는 個別企業에 의한 生産物價格은 그 企業의 產出量과는 關係없이 市場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獨占의 企業의 경우에는 生産物價格은 當該企業의 產出量의 增加에 따라 下落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結果 利潤極大를 위한 條件은 要素價格과 그 限界收入生産力과의 均等이라는 形態로 修正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A. P. Lerner 에 의하면, 完全競爭下에서는 生産物價格이 限界費用과 같아지지만 競爭이 不完全할 경우에는 兩者에 隔差가 생기는데 이 隔差의 크기가 獨占度의 指標로 定義되고 이것이 分配率의 規定因으로서 登場되고 있다. 즉 獨占度の 增大는 勞動의 分配率을 低下시키고 반대로 獨占度の 減少는 勞動의 分配率을 上昇시킨다는 것이다.⁽¹⁷⁾

한편 M. Kalecki 는 Lerner 의 獨占度の 加重平均을 구하여 이것은 總體的 分配率의 주된 規定因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때 그는 두가지 기본적인 假定을 前提하고 있다. 첫째로, 大多數의 企業에 있어서 完全操業以下の 產出水準에서는 短期限界費用이 거의 固定的인 것이라는 것과 둘째로, 大多數의 企業이 통상 完全操業以下の 產出水準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原料費에 대한 賃金費用의 比率이 정해진다면 當該企業의 總產出高에 대한 賃金支拂額의 比率은 獨占도에 의하여 一義的으로 규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關係를 經濟全體에 대하여 集計하여 個別企業의 獨占度の 加重平均을 구하고 이에 의하여 總國民所得에 대한 肉體勞動者의 賃金分配率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Kalecki 의 獨占

(16) 大野 吉輝, 『巨視的 分配理論』, 日本評論社, 1965, p. 81.

(17) 『前掲書』, p. 88.

度理論이다. 이 이론은 俸給을 포함하지 않는 狹義의 勞動所得의 總國民所得에 대한 分配率을 生産物이나 生産要素의 需給關係 또는 代替彈力性和 같은 生産의 技術的 條件과는 관계없이 전혀 企業의 價格政策에 의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¹⁸⁾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新古典學派의 分配理論은 限界生産力說을 기초로 生産의 側面에서 分配問題의 把握에 접근하는 點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3

N. Kaldor, J. Robinson, K.E. Boulding 등에 의하여 代表되는 케인즈派分配理論의 기본적인 특징은 國民所得에 대한 投資의 比率로써 표시되는 有效需要의 內部構成을 總體의 分配率의 주된 規定要因으로서 보는 점에 있다. 앞서 본 新古典學派의 分配理論이 生産函數를 분석의 기초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케인즈派分配理論은 生産物에 대한 需要의 측면으로부터 總體의 所得分配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케인즈派分配理論의 기초로 되고 있는 것은 케인즈-카렉키流의 利潤論이다. 이에 의하면 資本家の 支出과 利潤간에는 技資支出이거나 消費支出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資本家の 支出은 그만큼 利潤을 증대시킨다고 전제한다. 즉 J. M. Keynes 에 의하면, 「企業者가 그들의 利潤을 아무리 많이 消費에 충당하더라도 기업자에게 歸屬하는 富의 增加量은 의연히 前과 같다. 利潤은 企業者의 資本增加의 源泉으로서 그중 아무리 많은 부분이 放恣한 生活에 투입되더라도 감소하지 않는 無盡藏의 瓶(widow's cruse)이다. 다른 한편 企業者가 損失을 보고 그 損失을 正常的인 消費支出의 節減에 의하여 즉 貯蓄의 增加에 의하여 補填하려고 할 때에는 그 瓶은 결코 채워지지 않은 Danaid Jar 로 된다. 이는 支出의 감소의 결과로서 消費財의 生産者는 그것과 같은 金額의 損失을 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企業者階級全體로서의 富의 감소는 그들의 貯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 같은 크기로 된다.」⁽¹⁹⁾

이와같이 Keynes 는 企業者의 正常利潤을 包含하지 않는 이른바 狹義의 利潤과 企業者의 支出간의 관계에 着目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M. Kalecki 는 正常利潤뿐만 아니라 利子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利潤과 企業者의 支出간의 관계에 관하여 본질적으로는 Keynes 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利潤의 總額은 投資財生産과 資本家用消費財生産의 價値와 같다. 이것은 總利潤의 크기가 資本家

(18) 『前掲書』, p. 89.

(19) 『前掲書』, p. 91에서 再引用.

의 投資支出과 消費支出의 합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利潤을 결정하는 것은 資本家の 投資決定이고 그 逆은 아니다」라고 결론하고 있다.⁽²⁰⁾

위와같은 케인즈-카레키流의 利潤論에 立脚하여 J. Robinson⁽²¹⁾은 投資와 利潤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利潤과 蓄積과의 관계는 二面的인 것이다. 利潤을 얻기 위하여는 勞動者 1人當의 產出高가 勞動者家族當의 消費——勞動力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비——를 超過하는 剩餘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가능한 技術的 剩餘의 存在는 利潤이 실현되기 위한 充分條件은 아니다. 利潤이 실현되기 위하여는 企業者가 投資를 實行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利潤이 소비되지 않는 경우) 利潤率이 費本存在量에 대한 蓄積의 比率과 같다고 하는 命題는 利潤의 側에도 蓄積의 側에도 該當된다. 利潤이 얻어지지 않으면 企業者는 蓄積할 수 없고 蓄積될 수 없으면 그들은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즉 Robinson은 利潤의 分配率은 純投資의 產出高에 대한 比率과 같고 또한 資本利潤率은 純投資 내지 蓄積의 資本存在量에 대한 比率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같다면 資本家の 投資支出의 증대는 利潤分配率의 增大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로빈슨·모델에 있어서는 消費財部門의 利潤과 投資財部門의 賃金支拂額이 같지만 이것은 消費財部門의 利潤마진은 一方에서는 이 部門의 勞動者가 生産物의 모두를 소비하는 것을 沮止하는 것과 함께 他方에서는 資本財部門의 勞動者가 消費財의 分配分에 參與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蓄積率의 上昇에 의하여 資本財部門의 比重이 높아지면 消費財部門의 利潤마진이 증대하고 實質賃金率은 低下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Robinson의 思考에 의하면, 「地代와 賃金の 水準 및 利潤率은 각각 土地 勞動 및 投資의 限界生産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세가지는 모두 技術的 諸可能性의 스펙터, 經濟全體가 이용하는 勞動과 土地의 供給 및 이미 行해지고 있는 蓄積의 量에 의하여, 또한 諸商品에 대한 有效需要의 水準과 投資率에 의하여 복잡한 方式으로 同時에 결정된다.」 즉 Robinson의 分配理論의 分析用具는 「技術的 諸可能性의 스펙터」이라고 하는 概念인데, Robinson이 生産의 技術的 要因을 要素價格 또는 分配率의 基本的인 規定因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인식에 기초를 둔 것이다.

즉 예컨대 機械化의 정도가 낮은 經濟에서도 만약 蓄積率이 높더라면 生産物은 모두 消費에 充當되기 때문에 그때 成立하는 賃金水準은 機械化의 정도가 높지만 同時에 蓄積도 旺盛한 經濟의 그것보다도 높은 水準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機械化

(20) 『前掲書』, p. 92.

(21) 『前掲書』, pp. 93—101.

의 정도가 낮은 것은 低賃金の 背後에 있는 諸原因의 하나의 徵候이더라도 그 자체가 低賃金の 原因이지는 않고 마찬가지로 機械化의 정도가 높은 것은 高賃金自體의 原因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결국 Robinson 에 있어서는 所與의 技術的 條件下에서의 生産賃金を 넘는 技術的 餘剩의 分配의 決定權은 企業者側에 있고 勞動者는 인플레이션障壁에 의하여 여기에 抵抗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 限界內에서는 먼저 利潤이 주로 企業者의 投資意欲에 의하여 獨立의으로 決定되고 賃金は 그 殘餘로서 주어진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Robinson 의 分配理論에 있어서는 生産의 技術的 側面으로부터의 分析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從來의 分配理論에 등장한 그밖의 諸要因, 예컨대 獨占度나 交渉力 등도 實質賃金率의 規定因으로서 또는 인플레이션障壁 등과 같은 概念에 관련하여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Robinson 에 의하면 종래의 分配理論은 각각 分配에 관한 眞理의 중요한 一面만을 파악했던 것인데, 그것을 有機的인 全體으로 統合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Robinson 의 分配理論은 一種의 總合理論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典型的인 케인즈派分配理論을 展開한 N. Kaldor 의 接近을 보자.⁽²²⁾

Kaldor 는 「乘數原理은 二者擇一의으로, 즉 產出量 및 雇傭水準을 所與로 한다면 物價와 賃金간의 關係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한 所得分配——物價와 賃金간의 關係——를 所與로 한다면 雇傭水準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하는 思考에 기초를 두어, 乘數原理을 完全雇傭下(즉 產出을 一定)에 있어서 巨視的인 所得分配의 설명에 採用하고 있다. 經濟가 完全雇傭狀態에 있을 때에는 投資의 變動은 實質所得水準을 變化시키지 않고 전적으로 物價水準을 變化시키고 그 결과로서 物價와 比較的 硬直的인 賃金간의 關係, 즉 實質所得의 分配關係를 變化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 着眼하여 Kaldor 는 分配率의 規定因을 投資比率로 보고, 自然成長率 따라서 그 構成要素로서의 人口增加率 및 技術進步率의 增大는 投資比率의 上昇을 가져와 利潤分配率을 增大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Kaldor 는 投資比率이 利潤分配率로부터 獨立된다고 假定하고 다음과 같은 네가지 制約條件下에 利潤分配率 資本利潤率 賃金率을 投資比率의 函數로 파악하고 있다.

- ① 實質賃金率은 最低生存水準(subsistence minimum) 以下로 하락할 수 없다.
- ② 利潤은 資本家에게 投資誘因을 賦與하는데 필요한 最低水準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22) 『前掲書』, pp. 101—108.

③ 資本利潤率을 包含하여 賣上高利潤率에도 競爭의 不完全性에 基因하는 下限이 존재한다.

④ 資本係數는 利潤率로부터 獨立되어야 한다.

위의 네가지 條件중 第1의 條件은 Ricardo의 剩餘原理에 대응하는 것이고, 第3의 條件은 Kalecki의 獨占度理論에 照應하는 것이며, 第4의 條件은 新古典學派의 限界生産力說을 否定 내지 無視하는 것을 의미한다.

Kaldor의 理論은 그뒤에 상당히 修正되어 投資比率이 利潤率 내지 利潤分配率로부터 독립된다고하는 假定을 除去하고 貯蓄率 뿐만 아니라 投資比率도 利潤分配率의 函數로 파악하고 있지만, Kaldor의 기본적인 思考는 分配率의 主要한 規定因을 投資比率에 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로빈슨·모델에서는 供給의 側面도 「技術的 諸可能性의 스펙터」로서 적극적으로 導入되고 있는 데 대하여 Kaldor 모델에서는 이 要因이 완전히 考慮外에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生産側面이 아니라 需要의 側面으로부터 分配現象의 分析에 접근하고 있는 점이 케인즈派分配理論의 특징인 것이다.

4

지금까지 概觀한 古典學派 新古典學派 케인즈學派의 分配理論 外에도 이른바 社會學的 分配理論이라고 불리우는 一群의 分配理論이 있다. 그 代表的 提唱者인 Jean Marchal은 1950년 이래 多數의 論文을 통하여, 그리고 1959년 이후에는 J. Lecaillon과의 共著인 4部 著作書를 통하여 새로운 分配理論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²³⁾

이들 社會學的 接近을 주장하는 論者들은 앞서 본 바와같이 新古典學派의 分配理論이 生産의 側面에서, 케인즈學派의 分配理論은 需要(支出)의 側面에서부터 分配現象에 接近하고 있는 데 대하여 同一한 批判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理論을 전개하고 있다. 즉 하나의 循環過程으로서의 經濟活動은 論理的 順序로 보아 生産 分配 支出의 3段階에서 分析되어야 할 一聯의 作用인데, 供給偏向의 新古典學派의 分配理論은 要素投入의 結合過程인 生産으로부터 實質生産物의 分配에로 因果關係를 파악하고 있으며, 반대로 需要偏向의 케인즈派分配理論은 總體的 支出에서부터 出發하여 生産物에 대한 有效需要를 거쳐 分配를 통한 生産의 所得創出效果에로 分析을 推進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兩者는 모두 分配를 하나의 中間過程으로만 파악하고 所得이 個人 및 集團에게 歸屬되는 諸條件에 관하여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社會學的 接近論者들의 비판이다. 만약 分配過程이 아

(23)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Income*, 1968, pp.302ff.

무런 自律性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新古典學派나 케인즈學派以外的 어떤 代替的인 接近도 있을 수 없고 또 사실상 이 두 가지 接近의 어느 것을 選擇하느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所得分配過程을 生産側面으로부터 혹은 有效需要의 側面으로부터 接近하는 것은 兩者가 相互區別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相互補足的인 接近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所得主體인 사람들은 意識的인 集團으로서, 社會的 生産物이 所得分配 및 再分配를 통하여 分配되는 諸條件에 대하여 그들이 對抗하는 限, 所得受取者의 集團行態는 分配의 因果關係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自律性을 발휘한다고 본다. 이 點이 社會學的——혹은 社會經濟學的——分配理論의 出發點이다.

만약 個人所得分配의 資料를 分析해볼려고 하면, 相對的 分配分은 분명히 生産要素에 기초를 둘 수 없고 그러나 그것은 또한 部門分析에 의존할 수도 없고 이 兩者의 綜合에 기초를 둘 수도 없음을 알게 된다. 이 盲點으로부터 分配理論이 脫皮하기 위하여는 勞動人口 및 그 進歩類型의 積極적이고 세밀한 분석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社會學的 接近論者들의 주장이며 이것은 社會職業的 카테고리에 의한 推論을 의미하는 것이다.

社會職業的 카테고리라는 概念은 두개의 明白한 기준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주어진다. 그 하나는 家計의 主要所得源泉에 관련되는 收入過程에 따른 職業的 기준이며 다른 하나는 所得處分過程 즉 家計의 支出 및 貯蓄行態에 따른 社會學的 基準이다. 이 두 기준에 의한 個人所得의 分類가 要素 및 部分에 의한 그것보다 더욱 적절한 분석이라고 보고있다.

이러한 前提下에 Jean Marchal이 設定한 모델은 未熟練者 官吏 企業家 農民 貸金業者 등 6個의 기본적인 社會集團을 포함하고 있으며 分配란 결국 이들 社會集團간의 國民所得의 配分을 위한 하나의 戰場(battlefield)이라고 보고 分配問題에의 接近은 이 戰場에서의 支配的인 集團을 밝히고 그들 각 集團의 主要한 衝突과 戰略을 糾明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III. 分配理論과 後進國의 分配構造

1.

먼저 古典學派의 分配理論은 그것이 工業化初期의 經濟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여기서는 먼저 古典學派의 接近方法에 따라 所得의 카테고리를 賃金 利子 地代로 分類하여 後進國 分配構造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賃金에 관하여는, 古典學派가 考察했던 當時의 經濟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날 後進經濟에 있어서는 賃金水準의 低位性이 하나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賃金水準의 低位性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① 勞動組合의 未發達 내지 脆弱性 ② 人口膨脹으로 인한 勞動市場에 있어서의 競爭의 激化 ③ 失業問題의 해결을 위한 資本節約的 投資에의 의존 ④ 先進國으로부터 수입된 工產品에 대한 國內生產品의 競爭.

이러한 賃金の 低位性은 특수한 分野에 있어서 不足한 專門技術者나 혹은 外國人管理者들을 過外하던 거의 모든 勞動力에 대하여 일반적인 현상이다.

賃金の 低位性이 특히 심한것은 農業部門이다. 農業部門의 賃金所得者들의 생활은 奴隸나 農奴의 그것에 近似하다고 할 정도인 것이다. 大地主들은 그들의 雇傭者들에 대한 賃金水準의 결정에 있어서 아무런 社會的 立法의 制限을 받지 않고 있으며 貨幣賃金보다 대부분은 實物賃金の 비중이 더 크고 그것도 永續的인 성격의 것이 아니고 노동의 성질에 따라 隨時로 그 수준이 달라진다.

그밖에도 後進國에 있어서의 賃金은 個人報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소 家緣이던 多數의 家族을 扶養해야 하는 家族의 내지 種族的 性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두째로 利潤에 관하여는, 大企業 혹은 外國企業에 있어서의 利潤과 中小企業에 있어서의 그것에는 본질적인 差異가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國際的인 大企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利潤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高利潤 때문에 後進國의 重要한 資源이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大企業은 低開發國의 雇傭에 크게 寄與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 大企業에서 실현된 높은 利潤은 대부분의 경우 本國으로 送金된다. 大企業들은 그 企業에 內包되어 있는 높은 危險性을 내세워 高利潤을 정당화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高利潤은 獨占의 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產業開發을 서두르는 政府의 政策이 그러한 獨占을 더욱 有利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大企業의 高利潤은 결코 Schumpeter가 말한 改革家 (innovator)에 대한 보수라고 볼 수는 없으며 協商家(negotiator)에 대한 보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後進國에 있어서의 高利潤은 有利한 社會的 經濟的 立法, 有利한 外換率, 民間資本의 誘致에 필요한 비상한 수단등에 주로 緣由하고 있다. 資本主義의 初期에는 企業家의 開拓의인 노력이 있었지만 오늘의 後進國에는 外交的인 企業家가 存在할 뿐이다.⁽²⁴⁾

(24) R. Gendarme, Reflections on the Approaches to the Problems of Distribu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Income*, ed. by Jean Marchal and B. Ducros, 1968, pp. 364-5.

셋째로 古典學派의 經濟理論에 있어서 生産要素로서의 土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따라서 그들의 分配理論에 있어서 地代가 중요한 位置를 점하고 있는 것은 農業이 아직도 經濟活動의 가장 중요한 형태로 되고 있는 後進國의 分配構造를 분석하는데 대하여 示唆하는 바 크다. 더구나 Ricardo에 있어서처럼 地代를 絶對地代와 差額地代로 區別하여 이해하는 것은 後進國의 地代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後進國에 있어서 絶對地代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地代의 引下나 撤廢가 農業生産性を 크게 提高할 수 있을 것으로 論及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後進國에 있어서는 灌溉施設의 有無나 通信施設의 利用可否에 따라 土地의 肥沃度나 效率에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差額地代는 그 重要性이 增大되는 傾向에 있다.

이상은 古典學派의 分配理論이 抽出한 세가지 形態의 所得이 오늘날 後進國에서 가지는 特徵을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古典學派의 分配理論은 오늘날 後進國에서 그 重要性을 無視할 수 없는 몇가지 形態의 所得을 看過하고 있다.

그 하나는 自給의 消費이다. 오늘날 後進國에 있어서의 自給的 消費는 그 絶對的 規模가 클 뿐만 아니라 總生産에 대한 비중도 가장 큰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하나는 中間商人의 所得이다. 後進國의 경우에는 農村地域과 都市地域간의 交通의 未發達과 적절한 市場活動 및 農民組織의 缺如 때문에 中間商人의 所得은 현저하게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끝으로 오늘날 후진국의 分配構造에 있어서는 도박, 貸金業, 投機 및 密輸 등에서 취득되는 所得도 결코 적지 않다.

이와같이 古典學派 및 新古典學派가 所得의 形態를 賃金 利潤 地代의 세가지로 분류한 것은 매우 일반적인 分類인데, 그것은 一見하면 經濟發展段階와는 관계없이 모든 經濟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後進國의 分配構造에는 古典學派의 分類를 적용시킬 수 없는 形態의 所得이 적지않은 重要性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後進國의 所得形態를 把握함에 있어서 古典學派의 接近이 지니는 弱點을 지적한 것이지만, 古典學派의 接近은 비단 所得形態의 파악에 있어서 不充分할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後進國의 分配問題에 대한 接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가지 側面을 看過하고 있다. 그 하나는 古典學派의 分配理論이 構造的失業의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配慮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所得分配에 대한 貨幣의 역할,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古典學派 및 新古典學派의 分配理論이 後進國의 分配問題를 설명해줄 수 없음을 보았지만, 그러나 케인즈學派의 分配理論모델 역시 後進國에게 적용될 수는 없

다. 그것은 이 理論의 關心對象이 되었던 失業은 오늘날 後進國에게 특징적인 失業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케인즈學派의 모델이 後進國에게 적용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의 몇가지가 있다.

① 케인즈學派의 모델은 높은 消費性向을 가진 集團에게 유리하도록 所得分配가 변화되면 乘數效果를 통하여 經濟活動이 촉진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에 특히 工業部門의 供給이 非彈力的인 後進國에 있어서는 위와같은 前提는 매우 不確實하다. 첫째로 後進國은 生産水準이 낮기 때문에 消費性向이 工產物에 관하여는 不充分하다. 즉 低所得層은 그들의 購買力 增大에 따라 農產物의 購入을 增大시키겠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需要가 충족되기 전에는 「工產物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며, 後進國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본적인 수요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적어도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되지 않는다면 다른 低所得層의 有效需要가 아무리 증대되더라도 經濟全體에 대하여는 매우 작은 영향을 미칠수 있을 따름인 것이다. 비록 低所得層에게 有利한 방향으로의 所得再分配가 企業家들로 하여금 新投資를 행하기에 충분할만큼 消費性向을 提高한다고 하더라도 資本 輸送手段 外換 熟練勞動 등에 많은 隘路가 있을 것이다. 後進國에서는 乘數의 作用을 妨害하는 諸要因이 構造的인 變化에 의하여 除去되지 않는 限 케인즈學派의 分配모델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② 케인즈의 모델은 後進經濟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分配모델에 있어서도 必須的인 한가지 區別, 즉 工產品消費性向과 農產物消費性向간의 區別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③ 케인즈模型도 역시 後進經濟에 適合한 所得集團을 設定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社會學的 分配理論의 接近方法을 後進國 分配構造의 分析에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보자. Jean Marchal의 分配理論의 특징은 得得分配를 圍繞한 社會的 諸集團간의 紛爭(conflicts)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있는데, 그가 抽出한 未熟練勞動者 官吏 企業家 農民 貸金業者 등 여섯 개 集團의 設定은 先進國과는 전혀 相異한 社會構造를 가진 後進國의 分配構造의 分析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하여 R. Gendarme은 下人(servants) 都市勞動者(urban sub-proletariat), 技工(artisan), 工場賃金勞動者(factory wage-earners), 農村프로레타리아(rural proletarian), 官吏(civil servants), 軍隊(army) 부르조아 및 貴族階級(bourgeois and aristocratic classes) 外國人(foreigners) 등 9個의 社會集團을 提示하고 있고, (25) Negrepoint-Delivanis는 Jean Marchal의 社會的 集團이 後進國의 경우 강력한 獨占의 地位를 행사하고 있는 外國人部門을 看過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6)

(25) R., Gendarme, *op. cit.*, pp.375-378.

그러나 우리가 後進國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社會的 諸集團의 綜合性을 감안한다면 社會學的 接近方法에 의한 分配理論은 一般性을 상실하고 個別 國民經濟의 특성을 연구하는 事例研究로 되기 쉽다. 이러한 接近方法은 물론 所得分配에만 국한하여 支配的인 社會的 集團으로서 軍隊, 官吏, 地主 혹은 外國人등을 羅列할 수 있고 地主와 外國人, 地主와 軍隊의 結托 혹은 다른 몇가지 結合에 의한 特定한 所得分配構造의 形成과 그 固定化傾向 등을 설명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분석, 즉 分配構造를 圍繞한 주요한 紛爭과 그 本質을 밝힌다든가 經濟發展段階의 函數로서 分配構造를 把握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後進國에 있어서 所得分配을 위요한 主要한 紛爭을 밝히는 것은 社會的 集團이라는 概念 이상의 것, 즉 集團간의 結束은 歷史的 思想的 政治的 諸要因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며, 그 紛爭이 예컨대 種族간의 對立 혹은 所得分配을 矯正하려는 意識的인 企圖에서 일어나는 것인가를 밝힌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R. Gendarme 이 後進國에서 발생할 수 있는 所得分配에 관한 주요한 社會的 紛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정리이다.⁽²⁷⁾

主要紛爭	強者が 弱者를 支配하는 主要手段	所得分配을 矯正하는 手段
都市 대 農村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移住增加 都市地域에의 投資와 下部施設 都市地域의 政治的 動向	財政的 手段에 의한 計劃
富裕地域 대 貧困地域	富裕地域의 始初의 利益을 유지하 도록 全國에 걸친 債權의 分散	貧困地域에의 贈與, 大規模公共事業 및 產業設置
地主대農村프로레타리아	財産 貸付 高利貸 및 政治的 壓力	農業改革
軍隊 및 不滿階層 대 特權階層	物質的 富強 社會的 및 愛國的 名聲(權威)	쿠데타
官吏 대 其他的 社會的 集團	知的訓練, 行政知識, 政治權力으로부터 他集團의 排除	教育機會에의 他集團의 參與 議會에의 參加
外國人 대 同胞 國民相互間	植民地條約, 大規模企業 貴族身分, 征服者 및 카스트權威, 宗教	植民地獨立, 國有化, 王權 革命 또는 社會的進歩의 促進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後進國의 경우에는 同盟罷業(strikes)이 所得分配에 대한 歷史手段으로서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 Gendarme 은

(26) Negrepoint-Delivanis,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Income*, ed. by Jean Marchal and B. Ducros, 1968, p. 303.

(27) R. Gendarme, *op. cit.*, p. 380.

後進國에서는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쿠데타 혹은 革命이라고까지 말하면서 後進國에서의 쿠데타의 類度는 先進國에서의 스트라이크의 그것과 비슷하며 先進國에서의 스트라이크는 점차 非暴力的으로 되고 있는 것처럼 後進國에서의 쿠데타도 점차 平和的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쿠데타는 所得分配과 관련된 動機에서 출발되며 최초에는 전혀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되더라도 所得分配을 변경시키지 않는 쿠데타는 別無하다는 것이다.⁽²⁸⁾

Jean Marchal이 그의 分配理論에서 많은 力點을 두고 있는 勞動組合은 後進國에 있어서는 重要性을 거의 지니지 못하고 있다. 先進工業國의 경우 勞動組合이 勞動者들의 勞動에 대한 代價로서 利潤중의 보다 큰 몫을 요구하는 것은 동시에 資本家에게 歸屬되는 分配의 比例的인 減少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後進國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보다 많은 消費의 요구는 인플레이션을 誘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勞動組合은 安定된 價格에서의 生産極大化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이것은 勞動組合이 要求者(claimants)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모든 水準에서 스스로 賃金에 制限을 加하고 社會的 不安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가와 協助하는 데 不過한 存在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勞動組合은 政治權力의 目的에 이용되는 政治的 道具로 轉落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리고 Jean Marchal의 分配理論에서는 所得分配에 대한 政府의 영향이 큰 중요성을 갖는다. 사실 先進國에서는 政府의 所得政策이 주로 差別課稅 등의 手段을 통하여 所得分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後進國에서는 그러한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다. 예컨대 課稅前後의 所得分配의 差異는 先進國의 경우 매우 큰 것이 一般的이지만, 이에 비하면 後進國의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社會學的 分配理論이 所得分配을 위요한 社會集團간의 紛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要因이 되고 있는 勞動組合의 역할과 政府政策의 영향이 後進國에서는 거의 無視될 정도로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社會學的 分配理論의 後進國分配構造에 대한 說明力은 그만큼 弱化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社會學的 接近은 所得分配과 經濟發展段階간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Rostow의 思考에 좇아 經濟發展段階를 간략히 傳統的 社會, 跳躍條件充足의 段階 跳躍段階, 그리고 成熟段階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各 經濟發展段階에 있어서 所得分配構造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²⁹⁾

(28) *ibid.*, p. 379.

(29) *Ibid.*, pp. 382-383.

즉 傳統的 社會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세가지 형태의 社會集團, 즉 貴族, 自由民, 奴隸狀況의 人民들이 발견되고 所得分配는 歷史的 혹은 慣習的으로 生成된 社會的 및 政治的 階級에 기초를 두고 결정되며 經濟的活動은 所得分配의 결정에 중요한 要因이 되지 못하고 所得分配의 不平等은 社會的 및 政治的 不可動性(immobility)에 基因한다.

跳躍以前段階의 社會에서는 社會構造의 형태에 따라 매우 複雜한 社會的 集團이 존재한다. 地主, 貴族, 小作農民, 外國人, 都市勞動者, 官吏, 軍隊, 初期段階의 資本家 등이 그것이다. 所得分配는 이들 集團의 政治的 勢力的 均衡에 의존하며, 後進國內부에 있어서 社會的 集團간의 紛爭이 시작되고, 廣範한 所得隔差, 특히 農村地域에 있어서보다 都市地域에 있어서의 甚한 所得不平等이 存在한다.

跳躍段階에서는 社會集團간의 대립이 一部 集團(예컨대 地主)의 除去를 결과하고 殘存 集團간의 結束이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技術主義的인 官吏, 軍隊, 혹은 企業家 등 세가지 社會集團이 經濟發展의 主導權을 장악하게 되는데 後進國에서는 企業家集團의 脆弱性 때문에 官吏나 軍隊가 보다 主導的인 立場에 서게 된다. 所得分配의 不平等은 극도에 이르게 되는데 그 原因의 일부는 經濟成長에도 있지만 特權集團의 작용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 少數의 特權集團을 除外한 나머지 人口는 最低生活水準에 놓여 지게 된다.

끝으로 成熟段階에 이르면, 複雜한 社會集團의 復活과 아울러 累進的 課稅의 증가와 그에 따른 所得範圍의 制約을 보게 된다. 사람들은 危險보다 安定을 選好하게 되고 危險에 대한 報酬라는 觀念이 부분적으로 除去되는 한편 保證所得(insurance income)의 觀念이 導入되며, 이는 社會集團간의 對立을 緩和시키고, 따라서 調和的인 所得政策의 遂行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같이 Jean Marchal 이 提唱하는 分配理論의 觀點에 서서 보더라도 經濟發展段階에 따라 所得分配構造는 뚜렷한 變化를 보이는 것인데, Jean Marchal 의 分配理論은 이러한 關係를 무시하고 결국 최후의 成熟段階에서의 分配를 논의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이상에서 우리는 既存의 分配理論이 後進國 分配構造의 分析에 부분적으로 有用한 모델이나 觀點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後進國分配構造의 分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보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既存의 分配理論이 가지는 弱點을 비판하고 새로운 接近을

주장한 最近의 試圖로서 Negreonti-Delivanis의 分析모델⁽³⁰⁾과 R. Gendarme의 接近方法⁽³¹⁾을 검토하기로 한다.

Negreonti-Delivanis는 後進國의 分配構造를 설명하기 위한 分析모델을 設定함에 있어서 먼저 後進國의 構造的인 狀況에 관한 몇가지 假定과 分析모델에 論理的으로 요구되는 몇가지 必須條件을 밝히고 있다.

그의 構造的 假定은 ① 經濟活動人口의 70%이상인 農業에 종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賃金以外的 所得이 보다 큰 比重을 占하고 있고 農業所得은 結局 利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經濟的 規模가 短期間에 커다란 變化를 보이지 않는 停滯的 經濟라는 점, ③ 慢性的인 失業에 의해서 支配되고 있다는 점, ④ 社會學的 要因은 所得再分配에 아무런 寄與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重要性을 갖지 않는다는 점, ⑤ 언제나 인플레이션壓力下에 있다는 점등이다.

그리고 分析모델의 論理的 條件으로는 ① 後進國에서는 農產物消費性向이 工產物消費性向보다 훨씬 크다는 점, ② 企業家만이 그들의 所得의 일부를 貯蓄할 수 있고 勞動者들은 所得의 全部를 소비한다는 점, ③ 農業人口는 農產物만을 소비한다는 점 등을 前提하고 있다.

위와같은 條件下에서도 農業人口의 生活水準이 낮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는 ① 農民들은 그는 自身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都市人口를 위해서도 生産手段을 제공하는데 農產物去來에서 中間商人에게 귀속되는 所得이 매우 크다는 사실과 ② 政府支出의 대부분이 農業에 대한 課稅에 의하여 充當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서 들고 있다. 따라서 農民들은 中間商人과 官吏들의 所得을 통하여 間接적으로 工產物에 대한 需要를 갖기 때문에, 農業部門에서 農產物의 一定量을 제공하고 그 대신 工產物을 직접 수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디플레이션의인 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그는 說明하고 있다.

Negreonti-Delivanis가 그의 分配모델에서 設定하고 있는 다섯가지 所得形態 및 기타의 變數에 대한 記號는 다음과 같다.

Y : 國民所得

W : 工業勞動者의 賃金

C : 工業勞動者의 消費

P : 工業部門 企業家의 利潤

(30) Negreonti-Delivanis, *op. cit.*, pp. 303-314.

(31) R. Gendarme, *op. cit.*, pp. 384-387.

C_2 : 工業部門 企業家の 消費

A : 農民의 所得

C_a : 農民의 自給消費

P_c : 農産物去來人의 利潤

C_1 : 農産物去來人의 消費

W' : 官吏의 俸給

C' : 官吏의 消費

$\frac{n_1}{AP}$: 經濟活動人口중 工業勞動者數

$\frac{n_2}{AP}$: 經濟活動人口중 工業企業家數

$\frac{n_3}{AP}$: 經濟活動人口중 農民數

$\frac{n_4}{AP}$: 經濟活動人口중 官吏數

$\frac{n_5}{AP}$: 經濟活動人口중 農産物去來人數

T : 農民의 租稅支拂(通貨量增加 包含)

S : 工業部門 企業家の 貯蓄(退藏의 形態)

I : 投資(在庫의 形態)

a_1 : 工産物消費性向

a_2 : 農産物消費性向

Negreonti-Delvianis 의 모델에 있어서는 다음의 恒等關係가 주어진다.

$$Y = W + P + A + W' + P_c$$

$$Y = C + (I + C_2) + C_a + C' + C_1$$

$$I = S$$

이상의 恒等式에서 보는 各 變數는 다음과 같은 函數의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1) C = F_c \left(\frac{W}{Y} \right)$$

$$(2) I = F_1 \left(\frac{P}{Y} \right)$$

$$C_2 = F_2 \left(\frac{P}{Y} \right)$$

$$(3) C_a = F_a \left(\frac{A}{Y} \right)$$

$$(4) C' = F' \left(\frac{W'}{Y} \right)$$

$$(5) C_1 = F_1 \left(\frac{P_c}{Y} \right)$$

Negreponi-Delivanis 는 위의 各 函數에 있어서의 說明項을 그의 假定과 條件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frac{W}{Y} = \frac{C}{Y} = f_1 \left(a_1, a_2, T, S, \frac{n_1}{AP} \right)$$

$$\frac{\partial W/Y}{\partial a_1} > 0, \quad \frac{\partial W/Y}{\partial a_2} < 0, \quad \frac{\partial W/Y}{\partial T} < 0, \quad \frac{\partial W/Y}{\partial S} > 0, \quad \frac{\partial W/Y}{\partial n_1/AP} > 0.$$

$$(2) \frac{P}{Y} = \frac{(I+C)}{Y} = f_2 \left(a_1, a_2, T, S, \frac{n_2}{AP} \right)$$

$$\frac{\partial P/Y}{\partial a_1} > 0, \quad \frac{\partial P/Y}{\partial a_2} < 0, \quad \frac{\partial P/Y}{\partial T} > 0, \quad \frac{\partial P/Y}{\partial S} < 0, \quad \frac{\partial P/Y}{\partial n_2/AP} > 0.$$

$$(3) \frac{A}{Y} = \frac{C_a}{Y} = f_3 \left(a_1, a_2, P_c, S, T, \frac{n_3}{AP} \right)$$

$$\frac{\partial A/Y}{\partial a_1} < 0, \quad \frac{\partial A/Y}{\partial a_2} > 0, \quad \frac{\partial A/Y}{\partial P_c} < 0, \quad \frac{\partial A/Y}{\partial S} > 0, \quad \frac{\partial A/Y}{\partial T} < 0, \quad \frac{\partial A/Y}{\partial n_3/AP} > 0.$$

$$(4) \frac{W'}{Y} = \frac{C'}{Y} = f_4 \left(a_1, a_2, T, S, \frac{n_4}{AP} \right)$$

$$\frac{\partial W'/Y}{\partial a_1} > 0, \quad \frac{\partial W'/Y}{\partial a_2} < 0, \quad \frac{\partial W'/Y}{\partial T} > 0, \quad \frac{\partial W'/Y}{\partial S} < 0, \quad \frac{\partial W'/Y}{\partial n_4/AP} > 0.$$

$$(5) \frac{P_c}{Y} = \frac{C_1}{Y} = f_5 \left(a_1, a_2, C_a, T, S, \frac{n_5}{AP} \right)$$

$$\frac{\partial P_c/Y}{\partial a_1} < 0, \quad \frac{\partial P_c/Y}{\partial a_2} > 0, \quad \frac{\partial P_c/Y}{\partial C_a} < 0, \quad \frac{\partial P_c/Y}{\partial T} < 0, \quad \frac{\partial P_c/Y}{\partial S} > 0, \quad \frac{\partial P_c/Y}{\partial n_5/AP} > 0.$$

$$(6) T = A - (C_a + P_c)$$

Negreponi Delivanis 가 設定한 모델은 위와 같지만, 이러한 所得分配 모델에서 그가 導出하고 있는 주요한 結論은 다음과 같다.

(1) 後進國에서는 經濟全體의 農產物消費性向이 工產物消費性向보다 훨씬 더 높지만 農業人口의 生活水準은 매우 낮다. 그 이유의 하나는 輸送施設이 未備하고 農民의 協同組織이 未弱한 狀態에서 農產物去來商이 매우 強力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政府가 農業部門에 賦課하는 租稅이다.

(2) 國民所得중 工業利潤의 畀어는 後進國經濟의 不充分한 工產品消費性向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그 이유는 後進國에 例外없이 존재하는 인플레이션壓力이 利潤의 畀어에 유리한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企業家들은 投資보다는 退藏을 選好하기 때

문에 工業利潤의 증대가 정상적으로 投資性向의 提高를 가져오지 않고 投資性向은 經濟全體의 工產物消費性向(매우 不充分한)에 의존한다. 그 結果 完全雇傭에 類似한 狀態에 조금도 接近하지 않았는데도 物價水準은 항상 上昇을 계속한다. 그러나 物價水準의 上昇傾向이 雇傭水準이나 生産的 投資의 규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인플레이션 壓力下에서 利潤의 몹어(P'/Y)와 官吏所得의 몹어(W'/Y)는 같은 方向으로 움직이고, 利潤 몹어와 工業賃金の 몹어(W/Y), 그리고 官吏所得의 몹어와 農產物去來人의 몹어(P_c/Y)는 反對方向으로 움직인다.

위와같은 Negrepointi-Delivanis의 모델은 農產物去來에서 높은 所得이 발생하는 後進國의 특징적인 사실과 構造的인 失業 그리고 貨幣的인 要因의 영향을 考慮하고 있는 點 등에서 古典學派나 新古典學派의 分析모델을 補完하고 있으며 높은 農產物消費性向과 매우 낮은 工產物消費性向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서 케인즈學派 모델이 지니는 弱點을 補充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한 弱點을 지니고 있다.

그 하나는 後進國의 分配構造를 완전히 靜態的인 모델에 의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後進國이 어떤 의미에서는 開發途上國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靜態的인 모델의 說明力은 크게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後進國의 共通的인 특징인 二重構造가 分配構造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늘날 後進國經濟는 例外없이 産業化가 進行된 近代的인 部門이 傳統的인 部門과의 立互作用없이 그위에 君臨하고 있는데 이 두 部門에서의 所得分配가 同一한 原理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모델은 結果的으로 封鎖經濟體制를 前提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날 後進國의 대부분이 충분히 開放的인 體制를 취하고 있는 狀況에서 後進國의 1次產品에의 特化와 外國資本의 導入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不合理하며, 外國援助에 관하여도 後進國의 所得分配와 관련하여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側面에서 Negrepointi-Delivanis의 모델은 이러한 接近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弱點이긴 하지만 지나친 單純化로 말미암아 그 現實性이 크게 沮害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R. Gendarme은 二重構造라는 後進國經濟의 特徵에 착안하여 後進國의 所得分配에 대한 새로운 接近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既存의 分配理論이 社會的 혹은 職業的인 觀點에서 分配構造를 보았던 것을 배경하고 社會學的인 經濟的인 地理的인 種族的인 諸基準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社會學的 基準에 立脚하면, 後進國에 존재하는 두가지 형태의 社會, 즉 進歩와 改革에 적응하는 都市社會와 傳統에 얽매인 農村社會가 구별되고 分配는 결국 都市所得과 農村所得의 組合으로서 考察된다. Simon Kuznets에 의하여 지적된 바와같이, 農村地域의 平均所得은 관습적으로 都市地域의 그것보다 훨씬 낮으며 都市地域에 있어서의 階層간 所得階차가 農村地域의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都市人口의 增加는 보다 많은 人口를 보다 不平等한 分配構造에 몰아넣게 되며, 이는 都市地域의 勞動生産性이 農村地域의 그것보다 더욱 급속히 上昇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學的 기준을 고려하면 결국 經濟開發過程을 통하여 後進國의 所得不平等은 증대된다는 것이다.

두째로, 經濟的 二重構造를 고려하면, 後進國 分配構造의 특징은 두가지 相異한 賃金水準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 하나는 農業, 中小企業, 匠人 등과 같은 傳統的인 部門에 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近代的 部門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賃金水準의 二重構造는 한편으로는 두 部門間의 生産性의 限界的 隔差를 반영하는 勞動力의 不完全可動性에 기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最低賃金 健康保險 家族手當 등에 관한 立法이 近代的 企業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연유하며 나아가서는 都市地域에서의 生計費上昇이 近代的 部門에서의 賃金上昇을 강요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利子에 관하여는 賃金水準과는 그 사정이 달라 近代的 部門에 있어서보다 傳統的 部門에 있어서 利子水準이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要因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즉 近代的 部門에서는 銀行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傳統的 部門에서는 高利貸의 慣行이 支配하고 있다든가, 輸送手段이 거의 전적으로 缺如되고 있는 農村地域보다는 海岸의 都市地域에 産業設備를 設置하는 것이 보다 低廉하다든가, 維持基準 등의 차이때문에 농촌보다 도시에서 産業設備가 더 오래 유지된다든가 하는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利潤에 관하여도, 精油 製鐵 化學 시멘트 製藥工業 등과 같이 近代的 技術과 資本을 이용하는 近代的 部門은 높은 獨占利潤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技工業이나 中小企業分野에서는 격렬한 경쟁과 技術의 落後, 資本不足 등으로 利潤水準은 크게 제한되고 있는 二重構造를 발견하게 된다.

다음으로 R. Gendarm은 地理的 基準을 적용하여 後進國에 있어서 相異한 地域間의 현저한 所得隔差를 지적하고 있다. 먼저 Myrdal이 『地域간 不平等을 測定함에 있어서 所得水準이 平均所得水準의 2/3에 未達하는 地域에 살고 있는 人口의 比率이라는 단순한 尺度를 적용하면, 이 比率은 英國이나 「스위스」의 매우 낮은 수준에서 「놀웨이」나 「프랑스」

의 10%, 그리고 「이태리」 「터키」 및 「스페인」의 30%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밝혔을 때의 尺度를 이용하여 R. Gendarme 은 이 比率이 後進國의 경우에는 50% 내지 70%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先進國에서는 이러한 地域간 隔差가 縮小되고 있지만 後進國에서는 오히려 擴大되는 傾向이 있음을 지적하고 地域간 所得再分配의 문제가 提起됨을 論及하고 있다.

끝으로 많은 後進國에 있어서는 人種的 基準도 중요하다고 한다. 즉 이 기준에 의해서도 심한 所得分配의 隔差가 들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人種的 所得隔差는 植民地體制下에서 植民族과 被植民族간에 典型的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植民地가 解放된 이후에도 人種的 所得隔差가 解消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許多하다. 이 點에 관하여 R. Gendarme 은 多人種으로 구성된 後進國의 경우에는 대부분 土着人種이 所得分配構造의 最下端에 있고, 人種的 差異가 所得不平等에 유리한 心理的 環境을 만들고 傳統的인 不平等을 永續化시키는 傾向이 있으며 이러한 不平等은 歐美諸國(예컨대 美國의 흑인)에 있어서보다 훨씬 심하다는 點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이 後進國의 分配構造는 어떤 單一의 特定한 基準에 의하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특히 二重構造라는 特徵에 착안하여 多角的인 基準에 의하여 接近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 R. Gendarme 의 主張이다.

이와같이 R. Gendarme 이 機能的 分配보다는 個人的 分配에 기초를 둔 所得分配理論을 選好하고 이를 後進國의 諸條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溫當한 接近인 것 같다. 그러나 個人的 分配라는 觀點에서 後進國의 所得分配問題를 다룸에 있어서는 먼저 生産所得(生産要素의 提供에 의하여 受取되는 所得)과 移轉所得간의 區別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西歐社會에서는 兩者간의 區別이 明確하며 移轉所得은 生産性이나 價格機構의 作用의 一部를 矯正하려는 制限된 目的에 따라 財政이나 社會保障制度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後進國에 있어서는 이러한 意味에서의 移轉所得은 그렇게 중요한 意味를 갖지 못하지만, 生産要素의 提供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意味에서의 移轉所得의 比重은 크다. 個人的 分配를 기초로 할 때 특히 後進國에 있어서 이같은 生産所得과 移轉所得의 區別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3.

지금까지의 論議에서 우리는 먼저, 後進國開發理論에 있어서 分配問題에 관한 論議가 비교적 等閑視되었던 사실을 지적하고 分配側面에 관한 論議없이 後進國問題에 대한 만족스러운 解答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論外로 되다시피 한 理由를, 後進國開發

理論이 先進國에서 먼저提起된 歷史的 背景과 관련하여 검토함으로써 後進國의 所得分配問題에 관한 理論的 關心의 必要性을 提示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後進國의 分配問題에 대한 接近에 있어서 既存의 分配理論을 採用할 수 있는 可能性을 검토하기 위하여 既存分配理論의 接近方法의 特徵과 主要한 結論을 整理한 후, 이를 後進國의 分配構造와 관련하여 검토함으로써 既存의 分配理論에 의한 後進國分配問題의 接近에는 상당한 制約이 있음을 보았다. 古典學派 및 新古典學派의 接近은 後進國의 所得形態를 把握함에 있어서 不充分할 뿐만 아니라 構造的 失業의 可能性과 所得分配에 대한 貨幣의 役割을 看過하고 있으며, 케인즈學派의 接近은 그 關心對象이 되었던 失業이 오늘날 後進國에게 特정한 失業과는 性質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 理論의 主要한 分析手段이 되고있는 乘數效果의 作用이 오늘날 後進國에서는 그 構造的 脆弱性 때문에 크게 制約되고 있고 工產品消費性向과 農產物消費性向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社會學的 接近은 그것이 設定하고 있는 所得集團이 後進國에게 그대로 適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理論에서 分配構造를 決定하는 主要한 要因으로서 力點이 두어지고 있는 勞動組合의 活動이나 政府의 所得政策이 後進國에서는 거의 重要性을 갖지 못하고 있고 所得分配과 經濟發展段階간의 關係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既存 分配理論의 諸接近은 後進國의 所得分配問題에 대한 接近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보았다.

끝으로 우리는 既存 分配理論의 그같은 弱點을 비판하고 새로운 接近을 試圖한 Negroponti-Delivanis와 R. Gendarne의 所論을 검토하였는데, 前者는 農產物去來에서 높은 所得이 발생하는 後進國의 特정한 事實과 構造的인 失業 그리고 貨幣的인 要因의 影響을 고려하고 있는점에서 古典學派나 新古典學派의 分析모델을 補完하고 있고 높은 農產物消費性向과 낮은 工產物消費性向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서 케인즈學派모델이 지니는 弱點을 補充하고 있지만, 後進國의 分配構造를 완전히 靜態的인 모델에 의하여 분석하고 있고 後進國의 公同적인 特정한 二重構造가 分配構造에 미치는 影響이 고려되지 않았고 封鎖經濟體制를 前提하고 있으며 지나친 單純化로 인하여 現實性이 크게 阻害되고 있다는 등의 弱點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後者는 二重構造라는 後進國經濟의 特徵에 着眼하여 後進國의 所得分配에 대한 새로운 接近을 提案하고 있는데, 既存의 分配理論이 社會的 혹은 職業的인 觀點에서 分配構造를 보았던 것을 排擊하고 經濟的 社會學的 地理的 및 種族的인 諸基準에서 後進國의 分配構造를 把握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後進國의 所得分配問題에 대한 接近으로서는 溫當한 出發點인 것 같다. 그러나 이같이 多角的인 觀點에서 出發하여 우리는 後進國에 있어서의 分配構造를 決定하는 要因이 무엇이며, 그러한 要因이 어떠한 原理에 의하여 作用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後進國分配構造의 分析에 있어서는 한가지 重要な 隘路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後進國의 分配에 관한 資料의 缺乏이다. 後進國의 所得分配에 관한 信賴할만한 統計的 資料는 어느 後進國을 막론하고 例外없이 缺如되고 있다. 물론 위와같은 觀點에서의 後進國分配問題에 대한 接近을 위하여는 오늘날의 國民所得統計의 有用性은 매우 의문스럽다. 先進國에 있어서 國民所得統計는 全體經濟를 同質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後進國에 있어서의 國民所得統計는 二重構造에서 齊來되는 經濟的 社會的 諸般 異質性을 反映하여야 할 것이다. 接近方法의 單純한 移植은 事實에 대한 그릇된 認識을 가져오기 쉬운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補助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助教〕